

조선반 학습 계획 12월 7일

교재 : 한국어 6-1

교육 목표: 학습 활동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네 영역을 골고루 사용하여 한국어 의사 소통과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한다

교시	수업 내용	교재 및 자료
1교시	문법: ~(으)ㄹ 바에야, ~기 십상이다 말하기 활동과 읽기 문제 풀기	국어 교재 6-1
2교시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 말해보기 받아쓰기 시험	동영상 사진
3교시	병자호란과 조선시대 후기 정치와 문화	문화 역사 자료
4교시	서예	
숙제	나누어준 프린트물, 일기나 독후감 1장 받아쓰기 틀린 것 써오기	

알림 : 조선반에서는 매주 새로 배운 단어 써오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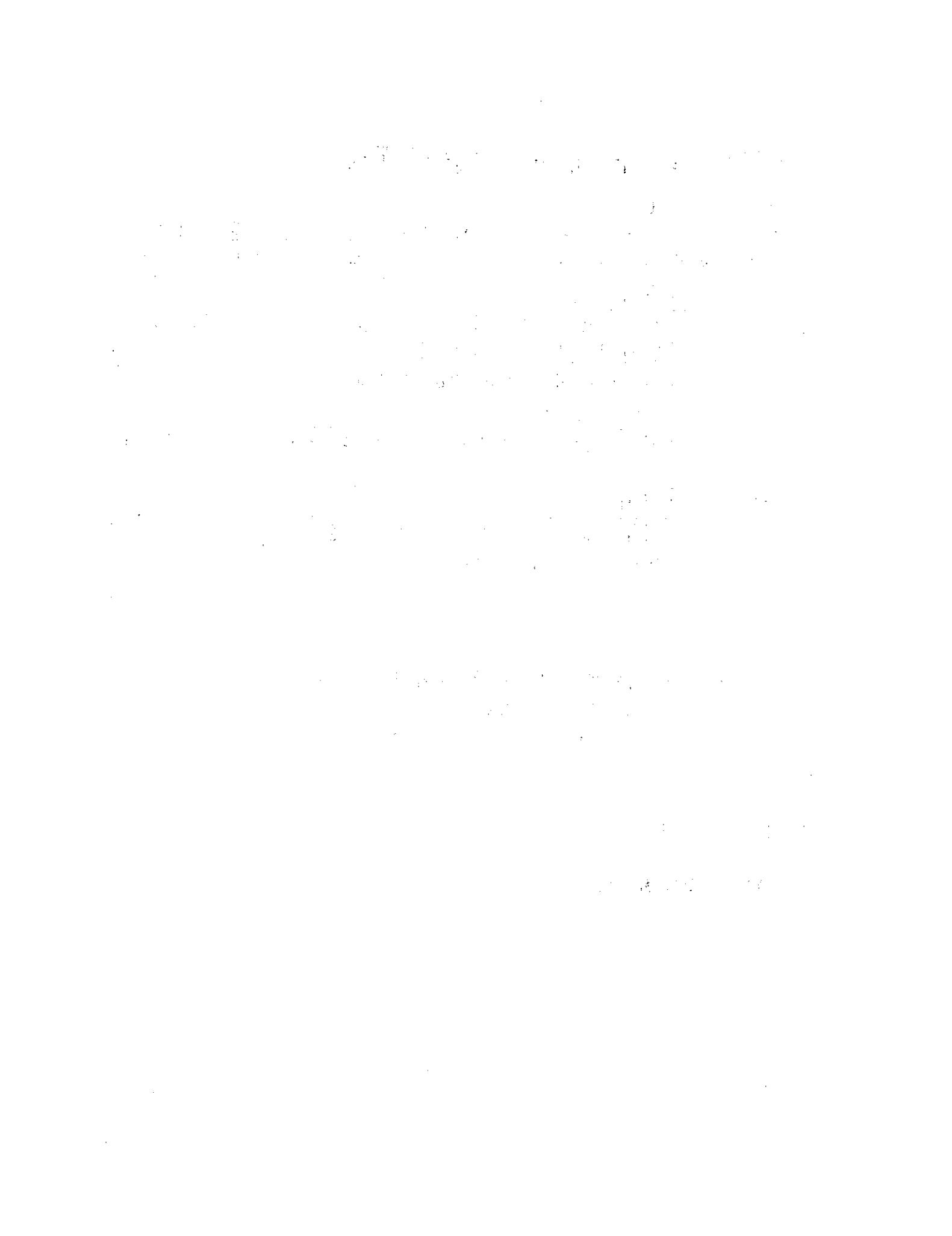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결석을 할 경우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 강승연

SHUEN98@HOTMAIL..COM



새로 나온 단어 써오기 3번 써오기

계획없이 돈을 쓰다

쉬는 시간이 없다

개선 방법

시급이 낫다

금액

세부 내용

발표해보다

창업 아이템의 이름

제품 판매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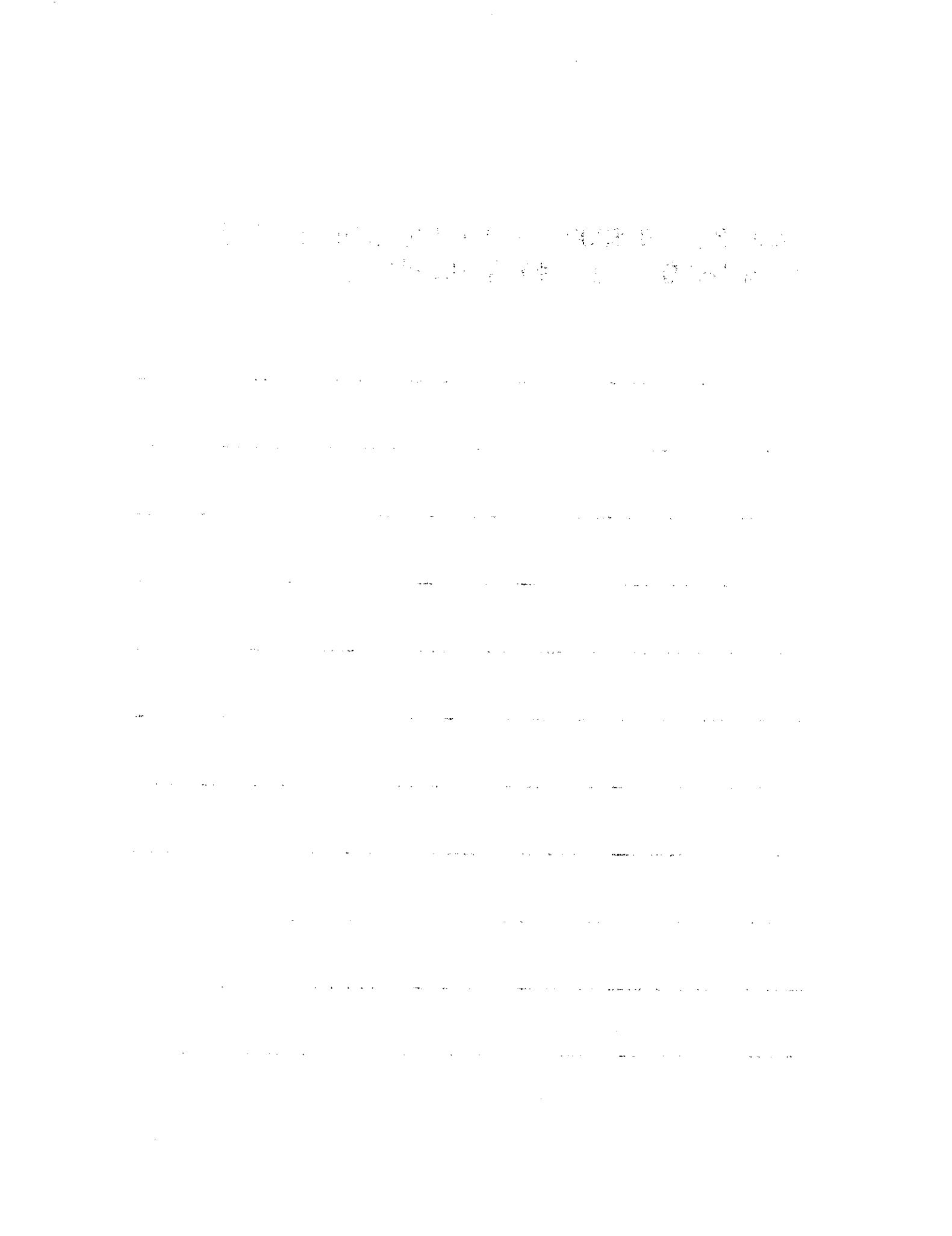
창업 마케팅

용돈 관련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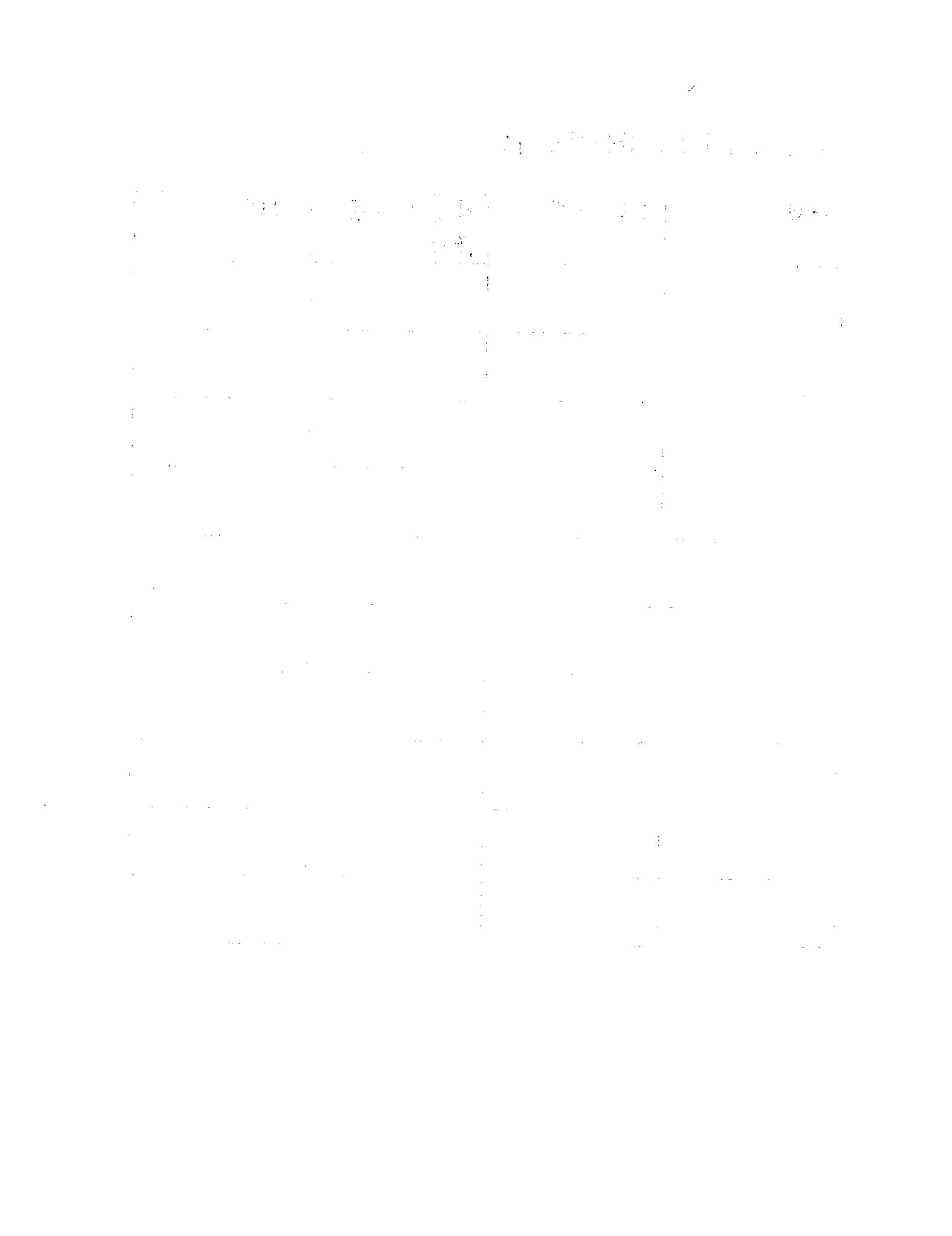
창업 제안서

작문

나에게 용돈으로 \$300이 생긴다면 한달(1month)동안
어떻게 사용할 것 인지 계획을 써오세요



용돈 기입장으로 만들어보세요



♣ 반대가 되는 말

- ◆ 다음 낱말을 사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보고, 또 반대가 되는 낱말을 가지고도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1. 커다란 :

조그마한 :

2. 길게 :

짧게 :

3. 따뜻하게 :

시원하게 :

4. 굵은 :

가는 :

5. 성공 :

실패 :

6. 밝은 :

어두운 :

7. 느린 :

빠른 :

1. 다음의 글을 읽고 () 속의 낱말을 다른 낱말로 고쳐서 짧은 글을 지어 봅시다.

1) 어제는 (날씨가) 아주 좋아서 온 가족이 (소풍을 갔습니다.)

→

2) 노란 병아리가 (입을 벌리고) 엄마 밖을 (따라 다닙니다.)

→

3) 개미 가족은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

2. 다음 네모 안에 들어 있는 낱말들을 한 번씩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해 봅시다.

1)

울타리, 지붕, 초가집, 병아리, 개나리

→

2)

수영, 해수욕장, 수영복, 바닷물, 부모님, 모래

→

어휘 학습



1 다음 국어사전의 검색 결과를 보고, '말갛다'의 의미와 느낌에 대해 알아보자.



'말갛다'는 소단원
04의 61쪽에 제시된
단어이다.

'말갛다'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위로

말갛다

「형용사」

- 「1」 산뜻하게 맑다.
- 「2」 국물 따위가 진하지 않고 맑다.
- 「3」 눈이 맑고 생기가 있다.
- 「4」 정신이나 의식 따위가 또렷하다.

(1) 국어사전의 설명과 '말갛다'의 의미가 같게 쓰인 문장을 연결해 보자.

「1」

나는 눈을 말갛게 뜨고 조그맣게 말했다.

「2」

두 콧구멍에서는 말간 콧물이 지르르 흘러 나오고 있었다.

「3」

흰 타일을 붙인 풀장의 바닥은 속 깊은 데까지 말갛게 비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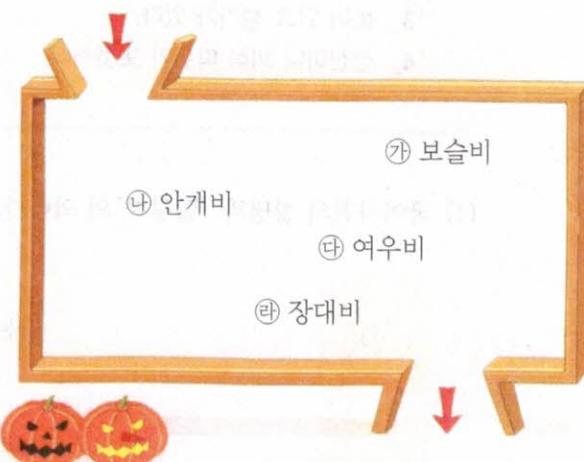
「4」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말갛게 개어 왔다.

(2) '멀겋다'를 이용하여 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말갛다'와 비교하여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2 다음 여러 가지 종류의 ‘비’에 대한 설명을 보고, 관련 있는 것끼리 짹지어 보자.

- ①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이는 비.
- ② 별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 ③ 굵고 거세게 쪽쪽 내리는 비.
- ④ 바람이 없는 날 가늘고 성기게 조용히 내리는 비.



(① -), (② -), (③ -), (④ -)



3 다음 문장의 빈칸에 ‘너머’와 ‘넘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넣어 보고, 두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 ‘넘어’는 소단원 04
의 61쪽에 제시된 단어
이다.

- 산 [] 남촌.
- 산을 [] 집으로 가는 길.
- 어깨 []로 배운 천자문.
- 고개 []로 보이는 엄마의 모습.
- 산을 넘고 고개를 [] 야 보이는 우리 학교.

3

병자호란과 북벌 운동

교과서 학습지도 | 1주년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 김상현

김상현이 고국을 떠나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학습 목표 |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즉위한 **광해군**은 전후 복구에 힘을 쏟았다.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리하여 국가 재정을 늘렸으며, 성곽을 수리하고 군사를 훈련시켜 국방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고통을 덜어 주고자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을 간행하게 하였다.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조선과 명이 약해진 틈을 타 여진의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하였다. 강성해진 후금은 명에 전쟁을 포고하였다. 이에 명이 후금을 공격하고자 조선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원군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후금을 자극하지 않도록 강홍립으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하였다. 결국 강홍립은 항복하여 후금을 자극하지 않았다. 강홍립이 항복하자 후금은 조선에 국서를 보내 조선이 명에 원군을 보낸 것을 이해한다고 하였다. 광해군도 후금과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답서를 보냈다. 후금은 강홍립 등 10명을 제외한 포로 전원을 석방하였다. 이처럼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을 전개하였다. 광해군 재위 기간 동안 조선은 명이나 후금과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도움 글

동의보감

“동의보감”은 허준(許浚) 등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들을 모아 집성하고, 실제 체험을 통한 치료 방법을 모아 놓은 한의학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1596년 선조는 허준과 정작, 양예수 등에게 명하여 의서를 편찬하게 하였다. 정유재란으로 편집이 중단되었다가 난이 끝난 뒤 허준이 광해군의 명을 받아 단독으로 진행하여 1610년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후금의 공격을 받다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자들의 불만을 초래하였다. 결국 광해군은 서인 세력이 일으킨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물러났다. 인조와 서인 정권은 친명 배금 정책을 표방하여 후금을 자극하였다.

후금은 광해군을 위하여 보복한다는 이유를 내걸고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왔다(정묘호란, 1627). 이에 정봉수와 이립 등이 의병을 일으켜 관군과 합세하여 후금에 저항하였다. 보급로가 끊긴 후금은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고 물러났다.

병자호란이 일어나다

후금은 요서 지역과 내몽골 지역을 장악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친 후 조선에 군신 관계와 조공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청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에 청의 태종이 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병자호란, 1636).

청군이 한양을 점령하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남한산성이 포위된 가운데 조선의 조정은 척화와 주화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인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남한산성에서 나와 청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하고 군신 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세자를 비롯하여 청과의 전쟁을 주장하였던 삼학사, 김상현 등 신하들이 청에 인질로 끌려갔으며, 수많은 여자들이 공녀로 보내졌다.



▲ 남한산성 수어장대(경기 성남)

도움 글

주화론과 척화론

우리의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의 병력은 강성합니다. 일단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추어 민심을 수습하고 군사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명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부모와 같은 은혜를 베풀 나라입니다. 명을 져버리고 오랑캐 밑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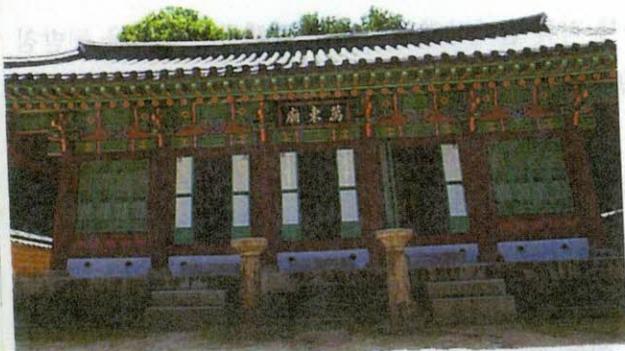


청의 침입을 받자 조선에서는 성리학적 명분론을 앞세운 척화론자와 현실적 실리를 앞세운 주화론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

북벌 운동이 일어나다



▲ 효종의 한글 편지(국립 중앙 박물관)
효종이 봉림 대군 시절 청에 인질로 가 있을 때 쓴 편지이다. 김상현의 어려운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



▲ 만동묘(총복 고산)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조선에 군대를 보낸 명의 신종을 제사 지내고자 지어졌다.

조선은 오랑캐로 여기던 여진족이 세운 청과 군신 관계를 맺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현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반감과 문화적 우월감을 내세운 **북벌론**이 제기되었다.

청에 복수한다는 북벌 정책은 호란 후 청에 인질로 잡혀갔다 돌아와 왕위에 오른 효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효종은 척화론에 섰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 등을 중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북벌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북벌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백성은 늘 어나는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거듭된 흥년과 재해로 생활이 더욱 힘들어졌다. 여기에 청의 국력이 강성해지고 문화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현실적으로 북벌을 단행하기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18세기 후반 청의 문화가 전성기에 다다르자 일부 지식인 사이에서는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자는 **북학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조선의 양반 유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청에 반대하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학습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에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 조선은 (강경책, 회유책)으로 3포를 개항하여 일본인의 왕래를 허락하였다.
- (인조, 효종)은/는 북벌 운동을 추진하였다.

2 다음 중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 | | |
|--------|--------------|
| (1) 명 | • ① 4군 6진 |
| (2) 여진 | • ④ 사신 파견 |
| (3) 일본 | • ⑤ 쓰시마 섬 정벌 |

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일본의 침략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유생들은 승려와 농민들을 규합하여 □□을 조직하여 싸웠다.
- 임진왜란이 끝난 후 즉위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신중한 □□ □□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 청이 침입하자 조선 조정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과 실리를 따르자는 □□□으로 나뉘었다.

2 봉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봉당의 폐해가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성리학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 편 사람들을 모두 역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반대편 사람들을 멀리 유배 보내니 이들 중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 “영조실록”

봉당 정치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었을까?

학습 목표 | 봉당 정치가 변질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영조와 정조가 추진한 탕평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봉당 정치가 전개되다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북인은 광해군의 정책을 뒷받침 하며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북인은 왕권 강화에 주력하였고, 상공업 진흥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 후 서인은 인조반정을 주도하여 북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으며, 남인을 국정에 참여시켰다.

서인과 남인은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면서 상호 비판과 상호 공존의 봉당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때 정치적 여론은 주로 서원을 중심으로 모아져 중앙 정치에 반영되었다. 이와 같은 여론을 주도한 것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각 봉당의 산림이었다.

봉당 정치는 현종 때까지 서인과 남인이 연합하여 공존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 두 차례에 걸친 예송 논쟁이 벌어지면서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뚜렷이 부각되었다.

산림

파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뛰어난 학문적 실력을 바탕으로 봉당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면서 정치에 참여하였던 학자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서인 세력의 송시열과 남인 세력의 허목이 있었다.

도움 글

예송 논쟁

왕은 사대부와 다르오.
따라서 왕은 왕실의
예법을 따라야 하오.

무슨 소리요, 왕도 사대부
중 한 명이니, 사대부의
예법을 따라야 하오.

남인

서인

효종과 효종의 비가 죽자 서인과 남인은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 이를 예송 논쟁이라고 한다.

예송 논쟁은 단순히 예법에 관한 논쟁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두 봉당의 견해 차이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탕평책을 실시하다

봉당 정치의 폐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영조는 봉당의 대립을 완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탕평책**을 실시하였다.

영조는 왕과 신하 사이에 의리를 세워야 한다면서 봉당을 없애자는 논의에 동의하는 신료들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다. 영조는 봉당의 본원지인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으며,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봉당에 관계 없이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영조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다. 먼저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여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였다. 또 형벌 제도를 고쳐 지나친 형벌을 금지하였다.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심제를 엄격히 적용하여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영조는 자주 궁 밖에 나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으며, 신문고를 부활하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 그리고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 체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영조의 헌정은 봉당 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봉당 간의 다툼이 강력한 왕권에 눌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 성균관 입구에 세워진 탕평비

영조는 탕평비를 세워 탕평책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탕평비에는 “두루 사귀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평 무사한 마음이요, 치우쳐서 두루 사귀지 못하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라고 새겼다.

역사적 인물 이야기



봉당 정치의 희생양, 사도 세자

“세자의 정신)병이 점점 깊어 바라는 것 이 없사오니 소인(영빈)이 차마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위를 보호하고 세손(정조)의 안녕과 왕실을 편안히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 결단을 내리소서.”

- 혜경궁 홍씨, “한중록”



◀ 융릉(위)과 건릉(아래)(경기 화성)
사도 세자(장조)와 현경 왕후(혜경궁 홍씨)를 합장한 융릉, 정조와 효의 왕후를 합장한 건릉을 합쳐서 융건릉이라고 한다.



1762년 사도 세자가 역모를 꾀한다는 상소가 올라왔다. 그 후 사도 세자의 친어머니인 영빈까지도 영조에게 사도 세자의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영조는 사도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굶어 죽게 하였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정신병을 앓는 사도 세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의 이면에는 노론과 소론의 정쟁이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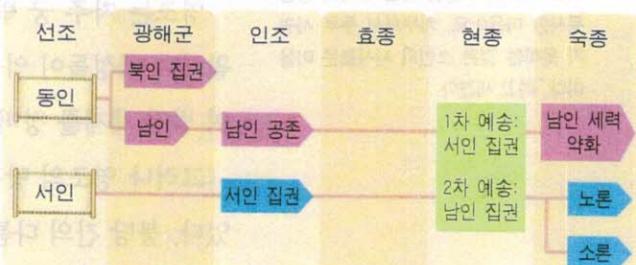
노론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영조와 달리 사도 세자는 소론과 가까웠다. 노론은 이런 사도 세자를 부담스러워하였다. 여기에 탕평책에 대한 영조와 사도 세자의 시각 차이, 외척 간의 갈등 등이 더하여져 사도 세자의 비행이 시작되었고, 이는 결국 사도 세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았다.

봉당 정치가 변질되다

봉당 정치는 숙종 때 이르러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갔다. 여러 차례의 환국을 겪으면서 서인이 권력을 독점하고 남인은 정권에서 밀려났다. 서인은 정책 수립과 상대 봉당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노장 세력과 신진 세력 간의 갈등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이때부터 특정 봉당이 정권을 독점하고 상대 당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봉당 정치는 합리적인 주장이나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3사와 이조 전랑은 정국이 급격히 변할 때마다 자기 당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여 정치적 비중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력이 고위 관료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들의 합의 기구인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숙종은 봉당 간의 대립을 조정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탕평책을 처음 실시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특정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 정권을 위임하는 정책을 거듭하여 정국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숙종 말기에는 봉당이 왕위 계승 문제에까지 개입하면서 왕권을 위협하였다.



▲ 봉당 정치의 전개



탐구 활동

봉당 정치의 폐해

자료 1 노론 처벌 상소

삼강 중 군위신강이 으뜸이 되며 오륜의 첫머리는 군 신유의인데 이들의 무너짐이 오늘날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정의 신하 된 자라면 마땅히 임금의 명령을 따라 야 하는데, 몇몇 노론 신하들이 이를 어겼습니다. 노론 대신들을 모두 처단하십시오.

- “경종실록”

자료 2 봉당의 대립 격화

경종 1년 아래로 조정에서 노론, 소론, 남인의 각 당파가 날이 갈수록 더욱 사이가 나빠져 서로 역적이란 이름으로 모함하니 이 영향이 시끌에까지 미치게 되어 하나의 싸움터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서로 혼인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당끼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 이중환, “택리지”

과제 1 자료 1에서 봉당 정치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자.

과제 2 자료 2를 바탕으로 봉당 정치의 변질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해 보자.